

앙트레프레카리아트와 호모 렌티어쿠스 사이에서: 경제적 인간의 초상

-<태풍상사>와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을 중심으로

김혜인 ■ 동국대

1. “나보다 내 직업이 먼저 죽는 시대”, 1970년대생 남성들의 생존기
2. ‘유연성(flexibility)’의 두 가지 벡터-한 장의 명함으로부터
3. 사람이란 자원과 ‘깨어있는 기업가주의(entrepreneurialism)’ : <태풍상사>
4. 노동의 복권, 혹은 금융 문맹의 몰락: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5. 결론을 대신하며-앙트레프레카리아트와 호모 렌티어쿠스, 경제적 인간의 초상(肖像/初喪)

1. “나보다 내 직업이 먼저 죽는 시대”, 1970년대생 남성들의 생존기

제작년 출간된 한 미래사회 트렌드 예측서는 “나보다 내 직업이 먼저 죽는 시대”¹⁾라는 문구로 세간에 회자된 바 있다. 이 책은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직업군의 급격한 재편을 전망하며, 일의 방식과 의미, 일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 등에 발생한 변화를 예측한다. 그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과 업무 시스템의 확장으로 협업의 범위가 조직 외부까지 확대되는 한편 업무 영역의 완결성 역시 극단적으로 분화되어, 직업은 더 이상 하나로 고정되고 연속되는 ‘소속’이 아니라, 매 순간 필요에 따라 조합되고 해체되는 ‘과업’의 단위가 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이미 신자유주의 체제가 초래한 고용 체계와 노동 형식 변화의 과정이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변화가 극단적으로 시행될 미래 사회에서 일하는 인간에 대한 전망 부분이다. 개인은 조직의 이름 뒤에 숨는 대신 온전히 자신만의 이름으로 불리며,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같은 예측은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이며 유토피아적이다. 머지않아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여 인류는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리라는 일론 머스크 식의 트랜스휴머니즘적 낙관과는 결을 달리하면서도 도래할 변화를 혁신적인 진화의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비슷한 시선을 공유하는 듯하다.

하지만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도래할 경제적 주체로서의 일하는 인간 초상(肖像)을 이상적으로 세공할 때, 현실에서는 평생직장과 안정된 고용을 전제로 했던 일하는 인간의 초상(初喪)이 치러지고 있다. AI에 의해 인간의 노동-직업이 부분적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동시대, 실직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보편적인 층위로 확장되어 편재한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일자리 상실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을 오로지 개인이 감당하게 되리라는 예측에서 증폭된다고 할 수 있다. 위기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거나 덜어줄 사회적 장치가 약화되는 상태에서 모든 결과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잔혹극은 ‘불안정성’을 개인 삶의 기본값으로 만들어왔

1) 송영길, 『시대에보-호명사회』, 교보문고, 2024.

다.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은 불안정성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생성된 이래 심화되어왔다. 90년대 한국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 경영이 초래한 국가 부도 위기는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파국은 막았지만, 그 조건으로 제시된 긴축 재정과 구조조정 등은 한국 사회 전반을 전면 재편했다. 특히, 노동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확대는 일(하는 인간)의 형식과 체계에 큰 변화를 발생시켰다. 2001년 구제금융 자금 상환으로 표면상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비정규직 확산과 임금 격차의 심화,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는 97년 체제의 암류(暗流)로 여전히 동시대 이어져왔다. 경제적 위기는 한 차례 발생하고 복구되어 종결되지 않고, 보다 느리지만 보다 지속적으로 개인의 삶을 주박하는 상시적 조건으로 지속된다.

그런 점에서 피터 플레밍의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죽음』(2018) 서문에 언급된 쓰나미 은유의 재고는 눈여겨볼 만하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7년 미국 금융 위기 이후 경제 상황을 한순간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의 복구기가 아니라, 밀려왔던 파도가 바다로 역류하며 “살아 있거나 죽어버린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암류(暗流)”²⁾의 단계로 설명한다. 부의 양극화는 보다 극단적으로 심해지고, 사회적 지탱 자금은 평범한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경제적 파도의 역류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해 줄 사회적 공간 역시 축소된 상태이다. 플레밍은 이러한 상황에서 거론되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 모델이란 기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배설물(환경오염, 스트레스, 불안감, 빈곤)”을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로 전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계 메커니즘’³⁾이라고 비판한다. 경제적 인간 모델은 합리적 선택을 내리는 주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의 인간’을 설명하는 모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 정의된 경제적 인간은 희소한 자원과 제약 아래, 최대한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합리적 이성을 통해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경제 활동의 주체이지만⁴⁾, 현실에서 그것은 경제 구조의 모순과 실패의 결과를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치환하여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통치 기제로 작동한다. 쓰나미의 ‘되밀림’ 속에서 개인들은 “배설물 사슬” 끝에서, 국가와 기업이 감당해야 할 구조적 실패의 비용을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자기 선택에 따른 결과로서 떠안는다. 요컨대 경제적 인간 모델에 관한 규정들은 대다수 중산층과 노동 빈곤층으로 하여금 사회 경제의 구조적 실패를 자기 선택의 결과로 수용하며, 자기 자신과 인적 네트워크, 나아가 시간마저 손익과 리스크 계산의 대상으로 삼는 걸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끔 만들어 왔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동시대 한국 사회에 편재한 실직에의 불안과 공포는 비단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 위기의 되밀림 속에서 개인의 삶이 분절되고 파편화되어 온 궤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가운데 플레밍이 말하는 경제적 인간의 ‘중계 메커니즘’

2) 피터 플레밍, 박영준 옮김,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죽음』, 한스미디어, 2018, 5쪽.

3) 위의 책, 12쪽.

4) 신고전과 경제학이 정의한 경제적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계산 능력을 활용하여 최선의 합리적 선택을 내리는 인간으로, 이들의 목적은 소비자 혹은 생산자와 같이 각각 서로 다른 입장에서 오직 자신의 만족(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독립적인 개인들의 선택이 통합된 결과로서 그 사회의 경제 환경이 설명된다. 이러한 정의는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학과 경제학이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사회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을 설명했던 방식으로부터 나아가 인간을 수치화된 정보와 한계 원리에 따라 자기 삶을 계산하고 최적화하는 주체이자, 그의 모든 선택을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위로서 환원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인간을 세공한 결과였다. (이에 관해서는 조준현, 『이성과 욕망-경제학이 발견한 근대적 인간형으로서의 호모 이코노미쿠스』, 피앤씨미디어, 2025 참고.)

이 가장 뚜렷하게 작동해 온 곳은 97년 체제 이후 ‘직장’이라는 공간일 것이다. 노동 유연화 정책 아래 직장은 위기의 결과를 개인의 몫이자 책임으로 전가하는 기술이 세공되어 온 장소였다. 취업과 실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인원 감축, 임금 격차 등은 구조적 맥락보다 한 개인의 역량과 태도와 같은 층위에서 설명되곤 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1970년대 남성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직장의 안팎을 오가는 생존기를 다룬 서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2025.09개봉), <태풍상사>(TVN, 2025.10.11.-2025.11.30)와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이하 ‘김부장’으로 표기)>(JTBC, 2025.10.25.-2025.11.30.)가 그것이다.

이들 서사에서 주인공들은 모두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으로 인해 직장 ‘밖’으로 밀려나거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직장 ‘안’으로 들어온다. <어쩔 수가 없다>의 주인공 만수는 1970년도 출생으로 25년 동안 근무했던 제지회사가 외국계 회사로 인수되며 구조조정이 시행되자 정리해고를 당하고, 재취업을 위해 분투한다. <김부장>의 주인공 김낙수는 1972년도 출생으로 그 역시 25년 근무했던 이동통신 회사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다 좌천되고, 희망퇴직을 당하며 ‘사회’로 나온다. <어쩔 수가 없다>와 <김부장>의 시대적 배경이 지금-여기인 동시대라면, <태풍상사>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IMF 외환위기가 발발했던 1997년을 배경으로 한다. <태풍상사> 주인공 강태풍 역시 김낙수와 같은 1972년도 출생으로 무역회사 대표였던 아버지의 죽음 이후, 회사를 지키기 위해 입사하여 사장이 된다. 직장 안팎을 이동하며 구성되는 이 서사들은 그 이동의 결과들을 모두 자신의 몫이자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경제적 인간의 생존기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어쩔 수가 없다>(2025)의 경우 1970년대생 중년 남성의 생존기는 다름 아닌 ‘취업 잔혹극’으로 구현된다. 주인공 만수는 25년간 제지업계 생산공장에서 중간관리직으로 근무한 제지 전문가로서, 종이의 울림만 듣고도 그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장인’이다. 그러나 회사 소유 구조가 외국계 주주 중심으로 재편되고, 적자 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행되며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당한다. 최대 성과와 최소 비용이라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고속련 집단의 장기 고용이 불필요한 비용으로 계산된 결과였다. 그는 외국인 경영진을 향해 한국어에서 해고란 사람의 목을 자르는 것으로도 표현된다고 항의하지만, 돌아온 답은 “어쩔 수가 없었다” 뿐이었다. 정리해고 이외에 여타 선택지-혹은 해고의 법적 절차인 해고 회피 노력이나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의 과정 속에 발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일축하는 “어쩔 수가 없다”는 말 속에서 일하는 인간으로서의 목/몫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듯 사라져 버린다.

제지업을 자기 삶의 전부로 여겨온 만수는 동종 업계 재취업을 준비하지만, 해당 분야의 취업 시장이 축소된 상황에서 난항을 겪는다. 매일 주담대 상황에 따른 경제적 압박은 그가 살고 있는 2층짜리 전원주택-중산층 남성 가부장의 로망이 투영되어 있는-을 매도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일자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주거 조건의 변화 역시 고려하지 않는다. 오직 단 한 명만 뽑는 제지공장 중간 관리자로 채용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잠재적 경쟁자들의 목/몫을 따서 스스로를 취업 시장의 희소성 있는 상품으로 제작하는 것이었다. ‘경영 정상화’를 표방하며 만수의 목/몫을 잘랐던 효율성의 기술, 나아가 이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은 만수에 의해 고스란히 반복된다. 결국 그는 재취업에 성공하여 제지공장으로 귀환하지만, 24시간 로봇에 의해 가동되며 자동화된 공장에서 그에게 주어진 일은 점등과 소등뿐이다. 도구와 사물의 세계를 다루는 자신을 구성해 온 호모 파베르(homo faber)⁵⁾였던 만수는 자신의 몫/몫을 연장하기 위해 인간-기계로 전락한다. 이 같은 만수의 전락은 그러나 거대한 사회 구조적 전환의 결과라기보

다,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자신의 정당한 ‘몫’이라 여기며 조금의 박탈도 견디지 못하는 중산층 계급의 속물적 욕망에 의해 추동되는 결과로서 재현된다.⁶⁾ 이 같은 서사는 자신에게 도래한 ‘배설물’들을 그 자신만의 역량-도구를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손-을 발휘하여 타인에게 전가하고, 이를 효율성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경제적 인간의 잔혹극인 셈이다. 그렇다면 동시대 이러한 경제적 인간의 생존기에는 왜 1970년대 남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할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연령적 중위집단을 이루고 있는 1970년대생을 세대론적으로 명명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정치적, 경제적 헤게모니를 장악해 온 386세대와 ‘공정’이나 ‘위라벨’ 같은 가치를 체화하며 성장한 MZ세대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세대’나, 부모 부양의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는 의미에서 ‘마치 세대’⁷⁾, 혹은 1970년대생 남성을 향한 경멸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영포티’⁸⁾ 등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경제적·사회적 권위와 지위를 확보하고 고수해 온 기득권 세대이자, 가족 부양과 돌봄, 주거와 부채, 노후 준비의 부담 등을 떠안은 세대이기도 하다. 동시대 이들은 과거 한국 사회가 맞은 경제적 위기의 충격을 노동시장 진입 세대로서 가장 먼저 겪은 세대이기도 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투과한 이들은 세대론적으로 ‘X세대’로 분류되며,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안정을 동시에 누린 첫 세대”⁹⁾로 설명되곤 한다. 이들은 1980년대 ‘3저 호황’ 아래 경제적인 풍요를 경험했고, ‘6.29 민주화 항쟁’을 거치며 민주화된 사회에서 성장한다. 1990년대 초중반 대중문화의 폭발적 부흥 속에서 소비주의와 개인주의를 체화하고, 정보화와 세계화 초창기를 경험한 이들은 기존의 가치나 관습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개인적인 특성을 보이는 세대로도 평가받아 왔다.¹⁰⁾

그러나 대학 졸업 후 노동 시장에 편입하거나 이미 안착한 상황에서 이들은 IMF 외환위기를 경험한다. 이들은 요컨대 ‘평생직장’에 충성하는 삶을 ‘일하는 인간’의 이상으로 주조했던 산업 자본주의의 언설을 신뢰하며 자란 마지막 세대이자, 한국 경제 구조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되는 기점에 평생직장의 신화가 깨지는 과정을 목도한 첫 청년 세대였다. 이들은 가부장제 생계 부양자로서의 정체성을 가내로부터 습득했지만, 실제 그러한 역할을 구현할 토대는 견고하지 않았었다. 경제 위기가 초래한 체제 전환기에 ‘일하는 인간’으로서의 자기를 처음으로 구성했던 동시에 재편해야 했던 세대인 셈이다. 김홍중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생존, 사회적 생존, 생물학적 생존이라는 세 가지 형식을 보편적 과제로 경험하며 ‘1997년 체제’를 투과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전시하는 영웅적 판타지의 주인공이 되어 왔다.¹¹⁾ 이러한 지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최근 1970년대 남성들의 ‘일하는 인간’으로서의 생존기가 대중문화 텍스트의 주요 소재로 대두한 현상은 경제적 위기의 결과를 한 개인의 목/몫으로 치환해 버리는 기제가 탄생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들이 살아남은 방식 혹은 그 존재의 궤적을 되짚어보는 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경제 위기의 되밀림인 불안정성이 기본값이 된 동시

5) 리처드 세넷, 김홍식 옮김, 『장인』, 아르테, 2022.

6) “‘요만큼의 전략도 수용 못하는 중산층의 속물적 욕망 다뤘죠’”, 『문화일보』, 2025.09.23.

7) 「부모 자녀 동시 부양에 허리 두 번 휘는 ‘70년대 생’」, 『동아일보』, 2024.12.11.

8) ‘새로운 40대 소비 주체’를 칭하는 이러한 표현은 20-30대 인구수 감소에 따라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경제력을 가진 40-50대 남성을 ‘젊은’ 소비의 주체로서 호명하는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말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는 ‘젊다고 착각하는 중년 남성’을 조롱하는 용어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청년 세대 남성의 관점에서 1970년대생 남성이 가진 사회적 권위나 경제적 자산, 그리고 이를 기반한 젠더 권력이 ‘젊음’의 소비와 결합한다고 느끼는 데에서 오는 반감이 담겨 있다.

9) 최셋별, 『한국의 세대 연대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127쪽.

10) 김세희 외, 「X세대의 자본에 대한 태도 유형」, 『주관성 연구』 통권 69호, 2024, 33쪽.

11)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41쪽.

대, 이들의 생존기를 통해 경제적 인간 모델을 추출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태풍상사>와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회사의 안과 밖이라는 상반된 방향성을 지닌 두 서사에서 ‘일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과 그 의미가 창출되는 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하는 인간’의 생존기를 통해 구성되는 경제적 인간 모델의 분화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유연성(flexibility)’의 두 가지 벡터-한 장의 명함으로부터

<태풍상사>와 <김부장>에서 재현되는 ‘일하는 인간’의 생존기는 명함의 획득과 상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태풍상사>의 강태풍은 부도 위기의 아버지 회사를 살리고자 입사하며 명함을 획득하고, 명함 앞면에 새겨진 직함과 자신을 합일시킨다. 이 과정은 그가 가졌던 명함의 변화-사원 명함, 사원이란 글자를 지우고 사장이라 쓴 명함, 사장 명함, 사장 글자 위에 진짜를 표기한 명함-이기도 하다. 한편 <김부장>의 김낙수는 실직과 더불어 부동산 상가 사기를 당한 끝에 그 간 자신을 수식해 온 ‘서울’ ‘자가’ ‘대기업’ ‘김부장’과 같은 여러 조건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은 누구인지 발견해간다. 이 과정은 김낙수가 소속과 직무가 기재된 명함의 앞면으로부터 분리되어, 공백으로 존재하는 뒷면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근대 이래 명함은 ‘일하는 인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분신으로 자리해 왔다.¹²⁾ 구조조정이나 질병,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명함을 상실하는 경험은 그렇기에 경제적 소득 감소를 넘어, 타인을 향해 ‘나는 누구인지’를 증명하던 서사가 단절되는 경험이기도 하다.¹³⁾ 그렇다면 명함의 앞/뒷면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 세계 경제 위기를 일으킨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초기 출간되었던 마이크 모리슨의 『명함의 뒷면』(2007)¹⁴⁾은 “당신 명함의 앞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 뒷면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¹⁵⁾ ‘명함의 뒷면’ 발견하기 프로젝트는 소속과 직무가 적힌 앞면에 집착하기보다, 공백인 뒷면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라고 권장한다. 이러한 조언에서 실직이라는 위기는 한 개인의 내면

12) <태풍상사>와 <김부장>에서 1970년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명함 획득과 상실의 서사가 일하는 인간의 생존기로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은 반대로 ‘일하는 인간’으로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발화 권리가 1970년대 남성들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런 측면은 ‘집안일’과 ‘바깥일’을 오가며 평생을 ‘N잡러’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명함을 가져본 적 없는 이들도 존재함을 생각케 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장년층 비정규직 여성들의 ‘일하는 인간’으로서 자기 삶에 대한 인터뷰를 담은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나』(경향신문 젠더기획팀,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나』, 휴머니스트, 2022.)는 쉽 없이 일했지만, 일하는 인간으로서의 자기에 관해 발화의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닌다.

13) 생애주기 상 나이-됨에 따라 그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장년층 은퇴의 경우에도, 그들의 회고에서 공통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은퇴 후 첫 만난 타인을 향해 과거의 경력을 필요 이상으로 길게 말하거나 아예 침묵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설명해야만 하는 순간의 낯섦과 곤혹스러움이다. 그러나 자연스러워 보이는 ‘나이-됨’에도 계층과 젠더, 인종 등의 교차 속에서 작동되는 연령주의가 깊게 기입되어 있듯이 은퇴 역시 특정 조건의 주체에게만 허용된 실직의 형식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14) 마이크 모리슨, 안명희 옮김, 『명함의 뒷면』, 쌤앤파커스, 2007.

15) 다양한 이유로 일자리를 잃거나 곧 잃을 이들, 나아가 ‘일하는 자’ 모두를 독자 삼아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내가 가진 자부심의 원천이자, 죽어라 달려온 이 모든 타이틀을 떼어내고 난 후에도 ‘나’는 과연 ‘나’일까? 명함 앞에 인쇄된 글씨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타이틀을 떼어버린다면 무엇을 생존의 무기로 삼을 것인가? 지금 당신의 명함 뒷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장의 계기로 치환된다. 경제적 활동의 물적 토대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고유한 나’, 현실적 부침 속에서도 훼손될 수 없는 ‘본래적인 나’를 찾아야 한다는 모리슨의 언설은 내면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진정성 담론과 실직의 불안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기계발 담론 간의 결합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 이러한 결합은 힐링과 치유 담론, 행복학이나 긍정 심리학 분야에서 하나의 상품이 되어 대중화되어 왔다.

기업 경영 및 리더십 전문가이자 긍정 심리학을 실무에 적용해 온 모리슨의 이력을 고려한다면, 그가 말하는 자기 발견의 기술이 무엇일지 짐작할 수 있다. 그에게 ‘명함의 뒷면’ 발견하기란 곧, “자신만의 진정한 리더십 목소리를 개발하는 여정”이다. 이때 ‘진정한 리더십’은 삶의 불안정성에 휩쓸리지 않고 주도권을 잡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를 위해서 삶의 가치와 목표를 설계하고, 그 달성을 위해 자신의 강약점은 파악하고,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감정과 태도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같은 자기 자신의 리더 되기 과정은 명함의 앞면에서 노동력이 인적 자원으로 재편되는 과정과 그리 다르지 않다. 경영 담론에서 리더십이 조직의 역량을 끌어내는 능력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개별적 역량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기술을 수반한다. 이때 노동력은 완성된 형태가 아닌 늘 개발하고 관리해야 할 인적자원으로서, 그 개발과 관리의 세목은 업무 능력만이 아니라 자기 발견과 이해의 기술까지도 포함된다. 소속과 직무 이외의 정체성은 생산성 증진을 위한 또 하나의 자원으로 언제나 유연하게 전환되고 치환되며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일과 일, 일과 삶 사이를 오가는 능력인 ‘유연성(flexibility)’은 고용 불안정이 상시화된 시대, 경제적 인간에게 생존을 위한 기예이자, 삶을 규율하는 역량으로 권장되고 있다.¹⁶⁾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유연성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한다. 하나가 ‘일과 일 사이의 전환 능력’으로서 프로젝트 단위로 분절화된 업무 환경에 대응하여 자신의 직무 정체성을 유연하게 재구성하는 역량이다. 다른 하나는 ‘일과 삶 사이의 조정 능력’으로서 변화하는 노동 시간이나 장소 등에 맞춰 일상과 노동의 경계를 유동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이다. 유연성 담론에서 한 분야의 전문성이나 조직에 대한 헌신, 안정적인 인간 관계 등은 시대에 도태된 것으로 여겨지는 대신, ‘일과 일 사이’ 혹은 ‘일과 삶 사이’를 유연하게 흐르는 능력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기술로서 권장된다. 유연성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보다 자율적이며, 균형을 보장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기실 그것은 노동의 재편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유연성은 오늘날 경제적 인간의 상반되면서도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두 가지 모델에 핵심적인 역량이다. 두 모델 중 하나는 실비오 로루소가 명명한 ‘앙트레프레카리아트(entreprecariat)’이다.¹⁷⁾ 기업가(entrepreneur)와 프레카리아트(precariat)의 합성어인 이 개념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하나의 사업체나 브랜드로 제작하고, 자신의 유용성을 오직 성과나 수익성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경제적 활동 주체를 가리킨다. 로루소는 오늘날 경제적 활동 주체는 그 어디에서나 ‘기업가정신’을 강요받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들은 프레카리아트의 불안정

16) 경영 담론에서 ‘유연성’은 기존의 관료제적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유연한 네트워크 형태로 조직을 재편하는 혁신으로 여겨져왔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직무 간 이동, 리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단위로의 분절 등과 같은 ‘일과 일 사이의 전환’의, 다른 한편으로는 근무시간 자유선택제, 돌봄과 노동의 병행, 워라벨 추구 등 ‘일과 삶 사이의 조정’의 기반으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리처드 세넷에 따르면, 경영 담론-현장에서 유연성은 효율성과 자율성이란 명목 아래 고용 형태의 변화를 균형과 기회 창출의 조건으로 정당화하지만, 노동자의 ‘장기적인 삶의 서사’를 파괴하고, 그들을 불안과 정체성 상실을 유발하는 파편화된 노동 환경 속에서 몰아넣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유연성 담론에 관해서는 리처드 세넷, 조용 옮김, 『신자유주의와 인간성 파괴』, 문예출판사, 60-85쪽 참고.

17) 앙트레프레카리아트와 관련한 논의는 실비오 로루소, 이빈소연 옮김, 『앙트레프레카리아트-이제는 우리 모두 모두 기업가, 그러나 누구도 누구도 안전하지 않지』, 유연성클럽, 2025 참고.

성을 벗어날 수 없는 역설적 존재라고 한다. 기업가정신이 사회 전반의 규범으로 확장된 ‘기업가주의’(entrepreneurialism) 사회에서 개인은 미셸 푸코가 명명한 ‘자기-자신의-기업가’가 되어 시장 원리를 내면화하여 자기를 통제하고, 자신의 향상을 위해 자기에게 투자하며, 자기의 비용을 관리한다.¹⁸⁾ 그러나 로루소는 이 같은 기업가주의가 프레카리아트의 조건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불안정성 위에서만 성립 가능하다는 역설을 말한다. 나아가 고용 불안정성의 세계에서 경제적 활동 주체로서의 개인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무 역량만이 아니라, 마음(mind), 인적 네트워크, 성향, 태도-예컨대 명랑함, 낙관주의, 친절함 같은- 등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유연하게 자원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며 활용해야만 한다.¹⁹⁾

또 하나의 모델은 ‘불로소득 자본주의’ 사회에서 ‘렌티어적 삶’ 그 자체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며 실천하는 ‘호모 렌티어쿠스(homo rentiercus)²⁰⁾’이다. 불로소득은 생산-노동이 제외되어 있으며 독점을 바탕으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 투자나 각종 금융 투자와 더불어 금융 중개, 온라인 플랫폼 등의 설비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자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이들이 ‘추출하는’ 금액을 가리킨다. 생산자본에 기초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전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산을 기반으로 부를 창출하는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돈으로 돈을 버는 활동은 더 이상 비생산적이거나 반혁신적인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²¹⁾ 오히려 기존의 질서를 거스르는 혁신이자, 미래를 꿰뚫는 생산적 활동으로 포장된다.²²⁾ 직업(본업)은 더 이상 그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아실현의 핵심 조건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직장에 다니는 것은 부를 창출하는 여러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여겨질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인간의 두 모델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를테면 ‘부의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패시브 인컴(passive income)²³⁾’을 창출하는 것은 앙트레프레카리아트적 상태에서 그 불안정성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포착될 수 있다. 반대로 호모 렌티어쿠스는 ‘부의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패시브 인컴(passive income)’을 창출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쉽 없이 일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앙트레프레카리아트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불안정성을 개인의 목/뭉으로 치환하는 두 모델은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다.

18) 올리히 브뢰클링, 김주호 역, □기업가적 자아-주체화 형식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14, 462쪽.

19) 실비오 로루소, 15쪽. 마음과 관련한 부분은 108-115쪽.

20) 김혜인, 「아파트 투자와 자기개발 주체의 형성-부동산 유튜브 담론과 서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8호, 2025, 271쪽.

21) 앤드류 세이어, 전강수 역,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여문책, 2024, 9면.

22) 금융 자본주의의 팽창 속에서 부의 불평등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온 배후로 불로소득 취득에 주목하고, 이에 관한 분석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2015년 앤드류 세이어의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한국어판 2024)를 시작으로 2016년 가이 스탠딩의 『불로소득 자본주의』(2019), 2018년 마리아나 마주카토의 『가치의 모든 것』(2020), 2020년 브렛 크리스포터스의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2024) 등이 있다.

23) ‘자면서도 돈을 번다’는 말로 대표되는 ‘패시브 인컴’은 과거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얻는 ‘액티브 인컴(active income)’과 대비되는 용어로, 단 기간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이후 지속적으로 수익이 자동 창출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부동산을 통한 임대 소득이나, 소유한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금, 전자책나 음악, 사진 등으로부터 나오는 저작권 수익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 통한 광고 수익 창출 등이 있다.

3. 사람이란 자원과 ‘깨어있는 기업가주의(entrepreneurialism)’ : <태풍상사>

<태풍상사>의 주인공 강태풍은 26살 청년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강남 오렌지족’이 자 소비와 취미의 주체로서 살아온 인물이다. 그가 나이트클럽에서 추는 춤은 다른 이들을 열광 시키지만, 정작 본인은 이를 직업으로 삼을 생각이 없다. 원예학 전공자로서 신품종 장미 개발을 꿈꾸지만, 그가 만든 장미는 시장에서 교환 가치를 획득하지 못한 미완의 상태이다. 그러나 IMF를 기점으로 강태풍은 소비와 취미의 주체에서 생산과 경영의 책임자로 거듭난다. 26년간 을지로에서 수입무역을 해온 중소기업 태풍상사는 IMF로 회사 자금이 막혀 부도 위기에 직면한다. 아버지 강진영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다 사망하자, 회사와 가정 모두 붕괴된다. 강태풍은 ‘무너지는 세계’를 지키기 위해 태풍상사의 직원이자 사장이 된다. 이후 드라마는 그 기본 소개처럼 “직인도, 돈도, 팔 것도 없는 무역회사의 사장이 되어버린 초보 상사맨”의 성장담을 구현한다. 도덕적으로 비열하고 타락한 안타고니스트인 무역회사 표상선의 사장 표박호와 그의 아들 표현준의 계약으로 태풍상사는 거래나 계약 과정에서 매번 위기를 맞지만, 강태풍은 이런 위기를 매번 극복하며 분투해 간다. 이 과정에서 흩어졌던 직원들이 다시 모여 믿음과 신뢰, 연대의 공동체에 회복하며 ‘가족-같은-회사’를 만들어가는 서사는 IMF라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기업가(起業者/企業家)적 주체’의 탄생이라는 영웅적 판타지로 구현해낸다.

드라마에서 강태풍의 성장은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된다. 회사 대표가 되어 붕괴 직전의 회사를 재건하는 과정과 회사 직원인 오미선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로맨스를 성사시켜가는 과정이다. 일부 시청자들은 ‘상사’라는 제목에서 ‘오피스 드라마’를 기대했지만, 무역회사의 영업 현장이나 전문적인 각종 실무, 상사맨의 애환 등이 아닌 오미선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전개에 실망을 표하기도 한다.²⁴⁾ 혹은 오미선의 꾸미지 않은 외양이나 툭툭거리는 말투를 기존의 여주인공들과 비교하며 오미선 캐릭터의 매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존재한다.²⁵⁾ 그러나 오미선의 캐릭터는 <태풍상사>가 구현하는 기업가적 주체의 성장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부모의 죽음으로 어린 동생들과 치매 할머니를 책임지는 가장이 된 오미선은 집안의 생계와 여동생의 학비를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태풍상사에 경리로 취직했다. 강진영 사장은 오미선의 능력을 신뢰했지만, 태풍상사에서 그는 고졸 출신의 경리에 불과했다. 오미선의 꿈은 상사맨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톡톡이 공부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업무는 영수증 정리, 청소, 커피 타기 등 각종 잡무에 한정되어 있다. 3회에서 재고가 된 이태리 원단을 둘러싸고 표박호의 계약으로 회사의 앞날이 불투명해지자 직원들이 모두 떠나고 강태풍은 혼자가 된다. 그는 그날 밤 오미선을 찾아가 태풍상사의 상사맨이 되어 달라고 제안한다. 강태풍은 오미선의 ‘고졸 여성’이라는 위치를 결격 사유나 한계로 보지 않고, 상사맨이 되고 싶어 하는 그녀의 욕망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활용한다. 오미선에게 강태풍은 그토록 갈망했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도하는 조력자가 된다. 이후 보다 강태풍과 보다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에도 오미선은 강태풍에게 사랑하는 여성으로 배려받기보다, 능력있는 상사맨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동시에 강태풍에게도 오미선은 태풍상사의 ‘안’으로 자신을 인도한 길잡이이다. 1회에서 강태풍은 표현준의 계약으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큰 죄책감을 갖는

24) 이러한 평가들은 무역회사를 배경으로 상사맨의 삶을 다룬 <미생>(2014)과 비교하며 내려지곤 한다. <미생>은 포스코인터내셔널(전 대우인터내셔널)을 모델로 한 종합상사 원인터내셔널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일화들을 하이퍼리얼리즘적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아 왔다.

25)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lists/?id=typhooncompany>

다. 이런 상황에서 오미선은 강태풍에게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전해준다. 태풍에 대한 믿음과 신뢰, 애정이 담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강태풍은 아버지의 삶 자체였던 태풍상사를 지키고자 하며, 그 '안'으로 들어온다. 이후 초보 사장인 강태풍에게 오미선은 실무 지식이나 정보 등을 알려 주며 그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주는 조력자가 된다. 강태풍은 그간 태풍상사에서 '고졸 여성'이라는 학력과 젠더적 정체성으로 실무에서 소외되었던 오미선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고 기회를 제공하며 파트너로서 도움을 받는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친밀해지는 이 둘의 로맨스는 낭만적인 열정이라기보다는 일하는 인간으로서 동반 성장하는 연대의 감정에 기반해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강태풍의 역량이 기존의 규범이나 가치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 그 불평등을 인지하고 교정하는 '깨어있는' 태도와,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욕망에 귀 기울이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구현된다.

사장이 된 강태풍은 전문 경영 지식이나 경험, 자본 축적의 기술보다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그를 매번 위기에 빠트리지만 동시에 그 극복을 통해 보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든다. 사채의 늪에 빠진 슈박 세이프 사장이나 부도 위기로 자살을 시도하는 다본테크 사장을 구하는 일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 가장 가치있다'는 슬로건 아래, 경제적 위기에 처한 이들을 향한 강태풍의 공감과 연민의 마음이다. 결국 슈박 세이프와 다본테크 사장은 강태풍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강태풍은 이들 회사와 거래를 성사시키며 수익을 창출한다. 사람을 향한 강태풍의 신뢰와 믿음은 사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도덕적 유산이자 계급적 자원이기도 하다. 아버지가 강태풍에게 통장 글귀로 남긴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라는 기율은 남편도 집도 없고 오갈 데 없어진 강태풍의 어머니가 오미선의 남루한 집에 기거하며, 미선의 치매 할머니와 동생들을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돌보는 모습으로도 구체화된다.

<태풍상사>는 불안정한 위기 속에서 사람을 향한 믿음과 신뢰, 공감과 연민과 같은 태도와 마음을 경영의 자원으로 삼아 생존하는 기업가적 주체상을 구현한다. 오미선을 비롯한 태풍상사 직원들을 향한 강태풍의 믿음과 신뢰는 '표상선'에 맞설 수 있는 유력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회사'의 구도 아래 강태풍이 구현하는 리더십은 이윤 창출을 목표로 운용되는 '냉혹한' 자본-기업의 세계에서 휴머니즘에 기반한 '뜨거운' 감정이 어떻게 구성원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기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자원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최종화에서 외국계 자본 유입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다본테크를 구하고자 강태풍이 다본테크 특허를 무료로 공개하여 독점을 막는 에피소드는 자본-기업의 세계에서 반효율적인 것으로 비춰지곤 하는 공유와 상생과 같은 '올바른' 가치가 역설적으로 시장의 판을 흔들고 수익을 창출 수 있는 자원이 되는지를 드러낸다.

강태풍 캐릭터는 그간 드라마에서 차갑고 냉혹하게 그려지곤 했던 경제적 인간형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점에서 <태풍상사>는 '가족-같은-기업'의 환상이 깨어진 지 오래인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이미 퇴색된 '가족=회사'의 모습을 낭만적으로 복원하여 노스탤지어를 유발한다.²⁶⁾ 그러나 드라마가 구성하는 노스탤지어는 비단 산업화 시대 이래 영웅적 기업이 신화의 한 축이었던

26) <태풍상사>가 IMF 시대를 역사적 맥락은 배제하고 '레트로 테마파크'로서 상품화시켜 재현하거나('레트로 테마파크가 된 IMF, <태풍상사>가 고난의 역사를 체리피킹하는 법', 『경향신문』, 2025.10.25.) 밀려난 사람들의 고통은 소거한 채 버틴 사람들의 승리-특히 상위 중산층 주인공의 복귀-만을 중심으로 재현하며('드라마 '태풍상사'의 복고 로맨스, 꼭 IMF가 배경이어야 했을까?', 『한겨레21』 1588호, 2025.11.06.) 노스탤지어를 창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만하다.

‘온정적인 기업 공동체’를 그리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그것은 감정과 마음, 태도 등의 영역마저 개발과 관리, 통치의 대상으로 발견되고 활용되는 동시대 경제적 인간 모델을 자연화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나아가 <태풍상사>가 구현하는 휴머니즘적 ‘공정 경영’은 오늘날 ‘깨어있는 기업가주의’를 상기시킨다. 칼 로즈는 『깨어있는 자본주의』를 통해 기업이 사회적 정의나 도덕을 표방하는 방식이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으로 보일지라도, 기실 기업 권력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어왔음을 말한다.²⁷⁾ 기업이 도덕을 표방하며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정치를 기업의 자선과 도덕으로 치환시킴으로써 사회 구조와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태풍상사는 IMF 외환위기가 촉발한 파국을 ‘사람이 무엇보다 소중한’다는 슬로건 아래 휴머니즘적으로 극복해내지만, 이러한 방식은 반대로 사회구조적 모순과 위기를 개인의 도덕적이고 선량한 역량만으로 극복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버린다.

만약 <태풍상사>를 신뢰와 믿음, 공감과 연민, 사랑과 행복과 같은 태도와 마음마저 자원화하여 생존 기술로서 구사하는 기업가적 주체의 성장담으로 본다면, 이러한 성장을 추동하는 구조적 맥락은 무엇일까. 강태풍이 태풍상사의 ‘안’으로 들어가는 2화의 장면은 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재벌 혹은 기업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에서 경영권 가족 승계는 막강한 부와 특권의 되물림으로 제시되지만, <태풍상사>에서 그것은 다른 결을 지닌다. 2화에서 강태풍의 아버지 장례식장과 태풍상사에는 채무자가 들이닥친다. 그는 밀린 대금 상환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다. 강태풍은 회사를 지키고자 스스로 연대보증을 서서 빚을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채무자는 이와 더불어 임대계약서까지 저당을 잡은 뒤에야 사라진다. 즉, 기업가적 주체로서의 강태풍의 성공담은 가장 먼저 연대보증과 담보라는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보증서에 사인하기 위해서 그가 태풍상사에 ‘사원’의 신분으로 입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때 사장은 경제적 부와 권력을 획득하는 자리라기보다 불안정성 속에서 위험을 인수하고 그 책임을 지는 자리가 된다. 2화에서 강태풍이 자신의 이름으로 연대보증을 서고자 하는 장면이나 5화의 ‘슈박 세이프’ 일화에서 그가 부산 사채업자와 협상하며 자신의 신체(‘태풍의 눈’)까지 거는 장면은 위기의 상황에서 강태풍이 자신의 물리적 신체를 자원화하여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는 위험을 말 그대로 온몸으로 막으며 살아남는다. 불안정성 속에서 그 스스로의 역량과 가치를 증명하며 생존해야만 하는 앙트레프레카리아트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자원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감정, 관계나 태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태풍상사>에서 강태풍을 ‘정당한 사장’을 만들기 위해 동원되는 신뢰와 믿음, 연민과 공감, 사랑과 행복과 같은 감정들이 성과와 수익을 창출하는 경영의 자원으로 발견되고 개발되며 활용되는 맥락에는 불안정한 상황의 연속에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원으로 발견하고 개발하며 활용해야만 하는 앙트레프레카리아트의 초상이 담겨 있다. ‘선량한 사장’ 강태풍은 과거의 이상적인 기업가적 주체로 기억되지만, 이러한 모델은 “우리 모두 모두 기업가”여야 하지만, “누구도 누구도 안전하지” 못한 동시대 앙트레프레카리아트의 현실과 긴밀하게 접속한다.

27) 칼 로즈, 오숙은 옮김, 『깨어있는 자본주의』, 여문책, 2025.

4. 노동의 복권, 혹은 금융 문명의 몰락: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김부장>의 주인공 김낙수는 IMF를 거치며 김대중 정부가 국가 유망 산업으로 추진한 IT 산업 부흥기 때, 이동통신 대기업에 입사하고 근면과 성실, 충성과 인맥 관리 등의 기술을 구사하며 사원에서 부장까지 승진 가도를 달려온 인물이다. 그는 늘 남들과 비교하며 자기를 확인하고, 남들보다 우위를 점했을 때 행복을 느끼는데, 이러한 점은 반대로 그의 승진 가도를 가능케 한 조건이기도 했다. 그는 상사에게 과도하게 충성하는 한편, 동료들과 경쟁하며 25년 동안 살아남아 곧 있을 임원 승진만을 기대한다. 그러나 인터넷 개통 관련 이슈가 터지고 그 책임자였던 김낙수는 이후 상사의 꼬리 자르기에 의해-그가 좌천된 시점은 그가 상사로부터 부하직원과 소통하지 않는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시대에 도태된 중간관리자로 평가되었던 시점이기도 하다-좌천된다. 안전관리팀장으로 지방 공장으로 내려간 그는 본사 복귀의 희망을 놓지 못한 채 기회를 살피던 중, 복귀 조건으로 공장 생산직 근로자 해고 명단을 작성하라는 제안을 받는다. 김낙수는 그러한 제안을 받고 고민하던 끝에 명단을 넘기지 않고, 희망퇴직을 선택한다.

실직 후 그는 재취업하려고 하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급여에 못 미치자, ‘월천낙수’를 꿈꾸며 퇴직금에 대출을 더해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는다. 하지만 악성 미분양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김낙수는 매달 이자 상환 압박에 시달리다, 형의 카센터에서 세차장 일을 시작하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깨닫는다. 이후 부채 상황을 위해 그는 서울 자가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경기도 월셋집으로 이사간다. 재직 시 실직에의 불안과 공포, 퇴직 이후 부동산 사기로 인한 초조함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앓았던 김낙수가 드라마 결말에서 아내와 손잡고 밤 산책을 하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과정은 과거 그가 그 자신과 합일해 왔던 ‘서울’ ‘자가’ ‘대기업’ ‘김부장’이라는 소속과 직함, 거주 방식을 모두 내려놓고 ‘진정한 자아’를 찾게되는 과정으로 그 의미가 부여된다.

이 같은 드라마 <김부장>은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직장인의 현실을 하이퍼리얼리즘으로 다룬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직장 생활의 기쁨과 슬픔을 묘사한 ‘50대 판 <미생>’으로 일컬어지며 <김부장>은 젊은 시청자들에게 ‘꼰대’ 김낙수를 보며 자신의 상사를 떠올리게 만들고, 중년 시청자에게 드라마 속 승진 경쟁과 좌천, 희망퇴직 종용, 부동산 투자 실패 등을 자신의 일로서 공감하게 만든 작품으로 회자된다.²⁸⁾ 혹은 세대와 계층에 내재한 불평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 자가 보유 아파트, 대기업 직장이라는 한국식 성공 서사의 핵심 기표를 모두 지닌 <김부장>의 서사가 한국 사회의 보편적 삶의 이야기로 치환될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그가 마주한 불행은 임원 진급 실패와 좌천, 5억 원 퇴직금이 동반된 명예 퇴직 정도이며, 나아가 그가 경쟁 시스템의 피해자인 동시에 남의 성과를 빼앗고 직무에 비례하여 무책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²⁹⁾ 이러한 논의는 50대 중산층 남성의 몰락 서사가 반대로 어떠한 세대와 계층, 젠더적 불안정성을 배제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는지를 생각토록 만든다.

한편, <김부장>이 수용되는 또 다른 방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낙수의 은퇴자산 관리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들이다. 예컨대 그가 퇴직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오천피 시대’, ETF나 TDF와 같은 투자 상품을 매입했다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³⁰⁾와 같이 ‘김부장’의 자산 관리 방식과 관련한 기사들은 드라마 방영 당시

28) 「“아프다 못해 시리다”...‘대기업 김부장’ 직장인 PTSD 유발하는 리얼함」, 『한겨레』, 2025.11.19.

29) 「‘서울 자가 김부장’의 반쪽짜리 공감」, 『서울경제』, 2025.11.28.

30) 「‘김부장’은 퇴직연금 투자 잘 했을까? ‘퇴직연금 고수’ 비법 들어보니」, 『경향신문』, 2025.11.30., 「오천피 시대 김부장 이야기」, 『파이낸셜 뉴스』, 2025.11.24., 「부동산에 묶인 자산, ‘김부장’의 불안」, 『동

부터 지금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70년대생 중년 남성의 직장에서의 삶과 그곳을 나왔을 때의 삶을 모두 다루고 있는 <김부장>은 요컨대 직장 내부의 성과 평가나 구조조정 등 경쟁 시스템이 발생시키는 불안정성과 직장 외부의 금융화된 생존 조건이 만들어내는 불안정성을 제시하는 서사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김낙수와는 다른 방식으로, 직장 안팎의 생존 방식을 가늠하고 대안들을 모색하게끔 하는 한 편의 교본으로 존재하는 셈이다.

<김부장>의 원작인 송희구의 소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이하 ‘김부장 이야기’로 표기)』(2021) 역시 수용자의 이 같은 반응을 유발하게끔 김부장의 삶을 서사화한 작품이다. 드라마 <김부장>에 주목하며 거론되는 ‘중년의 자산관리’가 대부분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원작 『김부장 이야기』에서 그것은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차이는 원작 소설에서 김부장 서사와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투자 구루(guru) ‘송과장’ 이야기가 드라마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모두 빠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³¹⁾ 2020년대 초반 부동산 투자를 소설화한 책들이 대거 등장했던 가운데,³²⁾ 송희구의 『김부장 이야기』는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작품이었다. 2021년 출간 당시 『김부장 이야기』는 ‘부동산 투자서’와 ‘자기계발서’ 사이 자전적 소설로서 각광 받았는데,³³⁾ 특히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송과장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소설 『김부장 이야기』는 총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김부장’ (1권)과 ‘정대리-권사원’ (2권), ‘송과장’ (3권)편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⁴⁾ 3부작 전체를 놓고 보면 『김부장 이야기』는 세대별 성장 서사이자, 투자 서사로서 각각의 주인공들은 서로 다른 위치와 조건에서 삶의 위기와 전환을 마주한다. 이들은 모두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자기 이해와 성장의 계기를 얻는데, 예컨

아일보』, 2025.12.09., 「월 1000만원 ETF 왜 안샀어…김부장 ‘월천낙수’ 망한 이유」, 『중앙일보』, 2026.02.10.

- 31) 물론 이러한 차이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불로소득 창출 방식에 대한 대중적 선호도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소설이 집필되었던 2021년도나 현재나 부동산은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권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가운데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한국 사회 자산 증식의 유력한 방법으로 자리한다. 그러나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자 억제와 주식시장 활성화가 정책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코스피 역시 상승해 온 가운데 주식 투자는 세대를 아우르며 ‘만인의 영역’으로 활황을 이루고 있다. 동시대 <김부장> 드라마가 언급되며 금융 투자의 방식이 권장되는 현상에는 시대에 따른 자산 운용 방식의 변화가 자리한다. 만약 주식 시장이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김부장> 관련 투자 논의들이 부동산 입지 분석이나 아파트와 상가, 토지, 오피스텔 비교 등 부동산 관련 정보들로 세목화되었을 것이다.
- 32) 송희구의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슈퍼 리치와의 대화에서 찾아낸 부자의 길』, 산군 김리치의 『중소기업 박대리는 강남 아파트를 어떻게 샀을까』, 이현철의 『강철멘탈』 등은 부동산 투자 콘텐츠 운영자가 자신의 투자 경험이나 부동산 지식을 바탕으로 집필한 소설이다.
- 33) 원래 송희구 개인 블로그와 네이버 부동산 커뮤니티에 연재한 소설로서, 해당 포털에서 인기를 얻으며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후 웹툰으로도 제작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네이버 웹툰에 연재되었다. 『김부장 이야기』는 웹 소설에서 단행본으로, 다시 웹툰과 드라마로 상이한 미디어를 이동하며 대중의 폭발적 관심을 받아 왔다. 한편, 송희구는 유튜브 부동산 전문 채널 <작가 송희구>를 운영하며 부동산 전문 유튜버로도 활동한다. <작가 송희구> 채널은 2020년 7월 10일에 개설되었고, 현재 구독자 수는 26.8만 명이다. 주요 키워드는 부동산, 아파트, 집값, 부자, 성공이며, 상위 3개 해시태그 역시 부동산, 아파트, 집값 등이다.
- 34) 드라마는 이 가운데 김부장 편만을 중심으로 각색되었으며, 그 내용은 소설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김낙수가 아산 공장 안전관리팀장으로 발령받아 내려가서 벌어지는 일화나 김낙수의 아들 김수겸이 스타트업 사기를 당하는 일화 혹은 김낙수 아내인 박하진의 동생 가족 일화들은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형된 내용들이다.

대 김부장이 퇴직 후 악성 미분양 사기를 당하며 기존과는 다른 삶의 방식들을 수용하고 체화하게 된다면, 경제 관념이 전무했던 ‘올로족’ 정대리는 결혼을 기점으로 주거 현실을 깨닫고,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삶을 설계해간다. 권사원은 부동산 하락론자인 남자친구와 갈등하다 헤어지고, ‘내 집 마련’과 자아 성장을 위한 미래를 계획한다. 송과장은 청년기를 무력하게 보내다 토지 보상으로 60억을 소유하게 된 아버지 지인의 사례를 보며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설정하고, 투자 주체로서의 삶을 개척해간다.³⁵⁾

이들 중 송과장은 작가 송희구가 투영된 인물로서 정대리와 권사원에게 부동산 투자의 구체적인 전략부터 투자자로서 삶의 태도까지 조언하며 이들의 성장을 조력하는 인물로 나온다. 이 같은 송과장의 면모는 드라마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그가 월차를 내고 입장을 가거나, 백상무와 도부장이 그에게 아파트 매매 관련 조언을 구하는 장면 정도로 그가 부동산 투자 관련 지식과 경험의 소유자임을 은연 중에 제시한다. 2021년 부동산 투자 소설로 수용되었던 원작이 2025년 중년 남성 직장인의 비애를 구현한 드라마로 전유되었던 것에는 송과장이 전문적인 부동산 투자 주체로서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자산자라는 설정은 ‘회사 이외의 세계’가 있는 인물임을 알려준다. 이러한 지점은 <김부장>이 구현하는 세계에서 송과장이 ‘사심 없음’의 미덕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과 연결된다. 그는 김부장, 백상무, 도부장과는 대조적으로 사내 정치나 권력욕에 관심이 없다. 인터넷 개통 관련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사태 수습 과정에서 돈보이고 싶어 하는 김부장에서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조언을 한다. 부하직원들을 다독이며,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책을 읽는다. 김부장은 이러한 송과장과 대조를 통해 그의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보다 부각된다. 그렇다면 송과장과 다른 김부장을 ‘꼰대’로 만드는 이 같은 태도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

드라마는 그간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여겨졌던 월급쟁이 삶의 기반이 무너졌을 때, 부동산 투자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투자 관련 지식과 훈련이 전무한 상황에서 그것은 가장 위험한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건 ‘금융문맹’ 김낙수의 몰락이 정보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그가 지닌 태도와 마음에 기인한 것으로 재현되는 방식이다. ‘대기업 김부장’으로 사는 동안 그는 자신의 직업과 주거 방식 이외에 여타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고, 중간관리자로서 시대에 변화에 맞는 리더십을 개발하고 펼치고자 하지 않는다. 건물주 친구의 수입은 부러워하지만, 불로소득을 말 그대로 노동 없는 소득으로 여기며 경멸한다. 아들 김수겸의 사업-창업 역시 장사 정도로 낮춰 보며,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무모한 허세로 치부한다. 삶의 여러 선택지를 상상하고,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능력의 결핍은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발현되어 김부장을 ‘꼰대’로 만든다. 김부장의 부동산 투자 실패는 기

35) 2권인 ‘정대리-권사원 편’은 30대 초반 직장인의 성장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대리는 물질적인 소비를 추구하고 재테크에는 관심 없는 ‘올로족’으로서 화려한 결혼 뒤에 냉혹한 현실을 경험한다. 권사원은 결혼을 앞두고 ‘내 집 마련’을 원하지만, 부동산 하락론만 신봉하며 아파트 매매를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남자친구와 갈등을 겪는다. 동시에 회사의 수직위계 구조에서 자신의 능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도 고민한다. 소설은 이들은 각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제시하는데, 정대리는 남과 비교하는 삶의 무용함을 깨닫고,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삶을 설계하기 시작한다. 권사원은 남자친구와 결별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한편, 회사 밖으로 나와 창업에 도전한다. 이들의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3편의 주인공 송과장이 자리한다. 송과장은 이른바 흙수저 출신으로 20대 중반까지 잦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며 위축된 채 살아왔지만, 60억 토지보상으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아버지 친구를 만나며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을 삶의 목표를 정하게 된다. 이후 그는 투자를 위한 종자돈을 만들고자 취직을 하고, 월급 이외의 자산 증식을 이를 수익 창구로서 부동산 공부에 매진한 끝에 이른바 투자 고수가 된다. (김혜인, 앞의 글)

실 투자 지식이 없어서라기보다, 애초에 ‘일 이외의 일’에 눈 뜰 수 있게 하는 유연성 부족에 기인한다.

소속과 직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정체성을 상실한 후, 김부장은 그 명함의 뒷면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드라마는 ‘행복하게’ 끝난다. 그러나 김낙수가 자신에게 닥친 파국을 말 그대로 몰락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전유하는 과정은 다소 문제적이다. 청년기 대기업 취직을 열망했고, 입사 후에는 경쟁 시스템을 체화하여 조직에서 살아남았으며, 한 순간 회사 시스템 밖으로 퇴출당하고, 불로소득을 창출하고자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부채를 갚기 위해 ‘집’을 잃는 과정 모두 김낙수 한 개인의 문제로 그려진다. 그 마지막에 도달한 불안정한 조건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수렴되는 과정에서 기업 내 제도화된 퇴직 압박과 사회의 자산 불평등이 발생시키는 충격은 한 개인의 자기 발견과 이해로 봉합될 뿐이다. 드라마는 명퇴나 투자 실패, 주거 상실 등의 사건을 통해서 동시대 직장인의 불안정성을 재현하고 있지만, 그러한 불안정성을 자기 성찰의 계기로 봉합하는 가운데 구조적 맥락의 문제들은 한 개인의 몫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점에서 역설적으로 <김부장>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고용 불안정성의 세계에서 투자 주체로서의 역량이 생존의 핵심임을 생각하게 이끈다.

김낙수의 생존/몰락 서사는 기실 ‘일과 일 사이’, ‘일과 삶 사이’를 옮겨 다니는 전환 능력의 중요성을 자아낸다. 불안정성 상태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주체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그러나 그러한 전환은 ‘노동’의 가치를 복권하고 인정하기보다, 불안정성을 개인이 스스로 관리하고 조정해야 할 삶의 과제로 제시하며, 그 실패의 책임까지 개인의 몫으로 환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런 구도에서 불안정성 세계의 생존자로서 ‘호모 렌티어쿠스’는 자신의 직업이나 주거, 소득의 조건을 그 스스로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조정하고 전환하며, 여러 선택지를 마련해 ‘인생 플랜 B’를 준비하는 유연성의 주체와 만나게 된다.

5. 결론을 대신하며—앙트레프레카리아트와 호모 렌티어쿠스, 경제적 인간의 초상(肖像/初喪)

(미완)